

## 17. 조선말기~근대기의 회화

1. 추사(秋史) 김정희(金正喜)와 남종화의 유행
2. 근현대화단의 태동: 오원 장승업-심전 안중식, 소림 조석진 등
3. 민화의 유행

### 2. 근현대화단의 태동

#### 1) 조선말기 장승업·허련의 화맥이 근대화단으로 이어짐.

##### ● 張承業(1843-1897)

-자는 景猷, 호는 吾園, 醉暝居士, 文岫山人, 관은 監察.

-배워서 될 수 없는 神品 화가 / 조선화단의 끝막음을 한 거장(문일평, 『조선일보』, 1935년)

-고아로 의탁할 곳이 없다가 수포교에 살던 이응헌의 집에 기식하면서 그 집 아들이 글 읽는 것을 어깨 너머로 배우고 그 집에 소장된 元·明代 이래 명적을 구경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신들린 듯 그림을 능숙하게 그리게 되었다고 함. 張志淵, 『逸士遺事』(1922년 출간) \*여향 인사들 사이에 구전되던 중인과 평민, 천인 등의 행적 모은 인물전.

-장승업의 화실, 六橋畫船은 광통교 부근 청계천변 소재.

-왕실과 민씨 등 당대 세도가의 애호를 받으며 신품 화가로 이름 날림.(1881년 화사로 궁 중의 명을 받아 그림을 그림)

※ 전대의 주류였던 예황법(倪黃法, 예찬·황공망의 법) 등의 문인 산수화풍이나 남종계 화보류의 정형화된 화법을 답습하는 데 그친 것이 아니라, 당시 세기말 양식으로 대두된 기이하면서도 강렬하고 환상적인 경향을 수용하여 보다 호방하거나 정치하게 구사했다. 심하게 변형시켜 기괴한 느낌마저 들게 하는 산수와 도석인물류 등은 개성적인 양주팔가의 화풍, 海派의 화풍과 상통.

<방황공망 산수도>

<삼인문년도>

기괴하고 음산한 노인, 괴상한 바위, 질게 깔린 구름 너머로 반복적인 파도.

‘東坡志林’의 고사 내용. “세 노인이 서로 나이를 물으니 한 노인이 말하기를 바다가 변하여 뽕나무 밭이 될 때마다 산가지 하나씩을 놓았는데 지금 꼭 10개를 채웠다.

『詩中畫』(1885년 상해에서 간행) 임모하여 나타난 특징.

※장승업의 화맥이 안중식·조석진으로 이어짐.

##### ● 허련의 화맥이 호남화단의 근간을 이룸: 허형(許滢)-허건(許楨)-허백련(許百鍊)

#### 2) 1910년대 전통미술의 개혁과 신미술의 수용. -화단의 형성과 미술제도의 변화

\*안중식·조석진의 서화미술회 창립과 활동

##### 안중식(安中植, 1861-1919)

-1881년 영선사(領選使)의 일행으로 조석진과 함께 청국 천진(天津)에 파견. 각종 기계의 구조 분석과 제도, 한문과 서양문자 등을 배우는 임무 수행.

-중국·일본 여행하며 화가로서 시야를 넓힘.

-1902년 어진제작(고종, 황태자 시절의 순종)

-1911년 서화미술회 창립.

-1918년 서화협회(書畫協會) 창립, 초대회장

### 조석진(趙錫晉, 1853-1920)

- 조선말기의 화가 조정규의 손자
- 영선사(領選使) 일행의 제도사(製圖士)로 안중식(安中植)과 함께 발탁되어 텐진(天津)으로 건너가 1년 동안 견문을 넓히고 돌아왔다.
- 귀국 후 도화서에 들어가 조선最後の 화원이 되었다. 영춘 군수(永春郡守)로 있던 1902년에는 고종의 어진 도사(御眞圖寫)에 안중식과 함께 화사(畫師)로 선발되어 화명을 드높였다.
- 안중식과 함께 서화미술회·서화협회 활동

**\*서화미술회:**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미술교육기관. 서과(書科)와 화과(畫科) 두 분야에서 제자 양성. 김은호·이상범·노수현·변관식 등 길러냄.

**\*서화협회:** 일제강점기에 서예가·화가들을 중심으로 결성한 최초의 미술인 단체. 1918년 발족하여 모두 15회의 협회전을 가졌으며 1937년 총독부의 정지령에 의해 조직활동이 중단되었다. 일제 주도의 조선미술협회에 대항하여 민족의식을 바탕으로 창립되어 <서화협회보>의 발간, 서화학원의 개설 등으로 대중 확보와 신진양성에 힘을 기울였으나, 기구의 규모나 운영, 심사·수상의 제도적인 측면에서 완전히 관전(官展)으로 출발한 조선미술전람회의 비대한 발전에 비하여 활동이 저조하였다.

### 김규진(金圭鎭, 1868-1933)

- 중국(청)에 가서 서예, 사군자 배워 왔으며(1885) 일본에서 사진기술 배워옴(1906). 영친왕에게 서법 가르침(1901).
- 황실과 긴밀한 유대. 풍부한 문장력으로 신문 통해 서화계몽운동도 펼침.
- 창덕궁 회정당(熙政堂)의 벽화 <내금강만물초승경 內金剛萬物肖勝景> 과 <해금강총석정절경 海金剛叢石亭絶景> 제작(1920).

**\*서화연구회(1915):** 김규진이 설립한 근대적 미술교육기관.

- 친일귀족 및 관리들을 임원으로 추대-친일적인 성격.
- 화과(畫科) 수업이 문인화, 사군자가 주를 이룸.
- 전문인 양성이 아니라 귀족들의 교양을 위한 학원으로 졸업생 가운데 뚜렷한 화가가 거의 없었음. 이병직, 김진우.
- 근대화단에 미친 영향은 서화미술회에 비해 미미했지만 강습소 규모는 서화미술회에 비해 오히려 컸다.

\*창덕궁 대조전·회정당 벽화 제작(1920)

김은호, <백학도(白鶴圖)>

오일영·이용우, <봉황도(鳳凰圖)>

이상범, <삼선관파도(三仙觀波圖)>

김규진, <내금강만물초승경(內金剛萬物肖勝景)>·<해금강총석정절경(海金剛叢石亭絶景)>

노수현, <조일선관도(朝日仙觀圖)>

### 3. 1920년대 서화협회와 조선미술전람회 발족

\*조선미술전람회

- 조선총독부가 1922~44년에 걸쳐 해마다 개최한 대규모 종합전람회.
- 1921년 조선인 미술가 단체인 서화협회(書畫協會)가 전시회를 개최하자 이에 자극을 받아 일본의 관전인 문부성전람회(문전)와 제국미술전람회(제전)를 본떠 조선미술전람회를 설치.
- 미술가의 등용문으로서 미술가 배출을 촉진하고 양적 성장에 기여.
- 일본미술의 경향을 유포시키는 통로로 기능. 엄격하고 정태적인 아카데미즘 미술을 확산시킴. 조선의 미술이 일본 미술의 아류이면서 식민통치에 순응하는 식민지미술로 재편되게 한 가장 중요한 제도적 장치였음.
- 미술이 다양하게 발달할 가능성이 제약되고, 전통과 단절되며, 미술의 현실대응력이 상실되는 등 근대미술의 중요한 문제점들을 제기. 해방 후 대한민국미술전람회로 연결되면서 미술계의 일제식민지 잔재 지속됨.

### 4. 한국화의 변모

- 전통회화와는 다른 새로운 조형관에 따라 그림.
- 관념적인 산수화나 중국화 모방에서 탈피, 실재하는 현실의 자연경관, 인간 생활상 소재로 채택, 사실적 수법으로 그림.

\*서화미술회 출신 작가들

△김은호(金殷鎬, 1892-1979)

- 순종의 반신상 어진 제작
- 새로운 표현 감각의 세필 채색화로 부드럽고 섬세한 필선과 맑고 우아한 채색의 사실적인 미인도(美人圖), 꽃, 새 등의 화제를 주로 다룸
- <춘향상>(1937)
- <이충무공상>(1950)

△이상범(李象範, 1897-1972)

- 청전(靑田)이라는 호는 스승 안중식이 '청년 심전(心田)'이란 뜻으로 를 지어준 것.
- <동아일보>에 삽화 그림. 1936년 '일장기 말소사건' 이후 금강산 등을 여행하며 실경 스케치를 했으며 후진양성기관 '청전화숙'(靑田畵塾) 운영에 전념했다.
- 1950년 홍익대학교에서 후학 양성.
- ‘청전양식’: 야취 짙고 스산한 정경을 사실적으로 그려냄. 미점법으로 낮은 산과 언덕을 안정된 구도로 전형화시킴.
- <금강산 만물상>
- ‘청전양식’ 정착. 언덕을 걸어가는 촌로(村老)와 바람에 휘날리는 자잘한 잡목과 초가집을 통하여 순박한 한국적 풍경의 진수를 보여줌. 굵고 가는 짙은 먹의 획들을 반복하기도 하고 갈필의 가는 필선으로 잔들을 표현하기도 하면서 독특한 준법(峻法) 형성.

△노수현(盧壽鉉, 1889-1978)

- 심산(心汕)화숙에서 제자 양성
- 해방 이후 서울대학교 예술학부에서 제자 양성
- 실재하는 산수를 합리적인 원근법에 바탕하여 묘사하는 근대적 조형관을 보임으로써 근대

동양화단에 실경산수의 전통을 확립하는 데 중심 역할을 했다.

\*전통적인 정신미의 구현(정신성을 추구한 이념산수화가)

-1950년대 이후에는 산수형태를 이상화해 조형적인 효과를 드러내는 데 치중, 웅장한 바위산의 형태미를 묘사한 것이 많다. 만년에는 산과 바위의 윤곽선에 황갈색 태점(苔点)을 사용해 화면의 장식성을 높였다. 주요작품으로는 <성재수간 聲在樹間> (1920)·<송청 送靑> (1957)·<춘경 春景> (1960)·<추경 秋景> (1968) 등이 있다.

△변관식(卞寬植, 1899-1976)

-조석진의 외손.

-소정(小亭).

-한국의 자연을 실경정신에 입각하여 개성있게 표현함.

-거친 붓자국과 대담한 구성으로 한국의 자연을 형상화함.

-짧고도 검은 먹선을 무수히 중첩시키는 적묵(積墨)과 파선(破線)이라는 기법을 활용. 이같은 태묵(苔墨)으로 산과 바위 혹은 나무와 같은 소재들을 선명하면서도 활기차게 표현.

<외금강 삼선암 外金剛 三仙巖> (1959, 개인 소장)

<옥류청풍 玉流淸風> (1961, 개인 소장)

<농가> (1957, 국립현대미술관)

※이상범, 노수현, 변관식 등 : 실경 묘사를 토대로 한국적 아름다움을 구현하고자 함.

## 5. 洋畵의 정착

양화가 미술의 한 장르로 정착된 시기. 기법적으로 성숙해짐. 다양한 소재와 내용 다룸.

▷ 일본 유학과: 이종우, 나혜석, 백남순, 이제창, 장발

국내파: 강신호, 김종태, 서동진, 김중현 등.

**고희동**<정자관 쓴 자화상> 1915

옛날 선비들이 평상시에 쓰던 관.

민족적 긍지와 자부심 표현.

\*유화에 대한 사회의 몰이해 탄식하면서 수묵화가로 전향해버림.

**김관호** <자화상> 1916

고희동에 이어 한인으로서 두 번째 서양화과 졸업. 평균 98점의 수석 졸업.

졸업 앞둔 겨울방학에 평양에서 그린 듯.

흑백의 색채대비 멋진 풍모가 강조된 역량 있는 작품.

김관호, <해질녘> 1916

졸업작품이자 문부성미술전람회 서양화부 출품, 특선 작품

평양의 능라도 부근을 배경으로 두 여인 그린 것.

서양의 욕녀상을 본받아 그리면서 자신의 경험과 연관시킨 것.

사실주의 기법에 충실하면서, 색채감각은 인상주의 성향과는 다른 객관적 시각으로 이루어짐. 화면에 서정적 정밀감이 충만함.

한국 양화사에서 첫 나체화.

**이종우 <자화상>**

한복 착의. 한국인 학생으로서의 자존심 내보이고 싶었음.

**<루앙 풍경>**

파리시절 대표작 중 하나. 유일한 풍경화.

세잔의 구축적인 면처리와 단순화, 투명한 청회색조의 명쾌함 본받으려 한 듯.

그러나 이종우는 전통적 사실주의 기법에 충실하였음. 이러한 시도는 이어지지 않았음.

**나혜석, <자화상>**

작가의 감정표출이 우선되는 야수파적 표현주의 수법으로 그려짐.

심정적 표현이 눈언저리에 강조. 얼굴, 머리, 어깨 등 몸의 형태 단순화, 색채의 강한 표정

<파리 풍경> 파리 8개월 체류하면서 그림.

단숨에 움직인 듯한 필치의 흥취와 아늑한 색조 분위기.

비비고 굵고 한 붓놀림은 야수파적 분방함 따르려 한 듯.

**장발, <성녀 김골룸바와 아네스 자매>**

김효임, 김효주 자매, 1839년 기해박해 때 참수, 순교.

1925년 로마 성베드로 대성당에서 복자위에 올랐다.

머리의 후광, 장식적 요소는 프랑스의 드니의 성화 작품 따른 것.

주연장식과 문자구성은 독일의 근대 보이론과 성미술 양식 취한 것.

**※ 한국 미술의 근대화 과정은...**

-일제 식민지하에서 왜곡되고 굴절된 방식으로 진행.

-해방 이후의 한국미술은 전통의 재정립, 현대화에의 요구, 보수와 혁신, 구상과 추상의 대립갈 등이라는 이중구조 속에서 한편으로는 근대성의 확립과 현대화에로의 이양이라는 과정 보여줌.

**【참고자료】**

홍선표, 『한국근대미술사』, 시공사, 2009

『한국 역대 서화가 사전』, 국립문화재연구소, 2011